

봉녕사의 '제1기 여성 출가학교'에는 전국 각지서 모인 11명이 입교했다. 이들은 한 달간 한국불교와 승가 생활 전반을 체험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참가자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올곧은 정진을 다짐했다.

11인 행자, 대자유인 향한 한 달 여정 시작하다

수원 봉녕사 제1기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 현장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출가학교라는 삶의 쉼표 같은 경험을 통해 오로지 저에게 집중하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금강경, 55)

"사회로 나가기 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가학교에서 바른 사유와 생활 습관을 체득해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하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향운지, 23)

"무의미하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이 60을 바라보니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을 삶고 싶었습니다. 출가수행자로 살아볼 기회가 생겨 너무 설레고 환희롭네요."(아녕, 57)

불문(佛門)에 귀의해 출가장부로 나아가는 여정, 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두렵고 힘들다 등등 막연함이 출가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수원 봉녕사에서 만난 제1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 금강경·향운지·아녕 행자가 그랬다. "부처님을 만나 위안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만나기 위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등 각각 다른 목적으로 봉녕사를 찾았지만, 부처님의 길을 선뜻 따라나선 행자들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2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1기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을 봉행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 11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제1기 출가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1명이 입교했다. 17세부터 65세까지 연령층도 다양하다. 이들 중 3명은 '번뇌초'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말끔히 깎은 모습으로 등장해 수행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2월 17일까지 한 달간 한국불교와 승가생활 전반을 체험한다. 일정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빼곡하다. 새벽예불·사시불공·저녁예불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발우공양, 운력 등 일과를 수행한다. 부처님 생애와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 수업도 받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정해진 일과 외에도 자비도량참법, 불교요가, 용주사 화성행궁 순례, 사찰음식 특강, 불교심리상담 등 봉녕사만의 특별프로그램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특히 1월 29일에는 출가자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팔관재계' 수계법회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봉녕사가 출가학교를 기획한 건 출가자 감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개최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 주제의 학술대회에 참여한 봉녕사 스님들은 출가 장려 방안으로 '출가학교'를 떠올렸다. '출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년 간 출가학교 경험이 있는 평창 월정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조언을 구했다. 게다가 봉녕사는 봉녕사승가대학과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을 바탕으로 전문 교수진들을 갖추고 있어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과 아녕 · 금강경 · 향운지 참가자.

17~65세 11명 한 달간 출가 체험
1월 22일부터 2월 17일까지 4주간
교리 · 명상 교육 등…팔관재계 수지
"출가 용기 얻어가는 삶의 전환점"

기대 속 문을 연 첫 여성 출가학교 고불식에는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등이 참석해 행자들의 흔들림 없는 정진을 기원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오늘의 성스러운 회상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온전한 '나'를 만나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발심행자들을 위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원력으로 거룩하게 장엄된 회상"이라며 "법계를 가득 채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마음을 열고, 피곤한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보살의 정신으로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는 구법의 마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입재사에서 "수행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 '어떻게'를 채워가는 과정"이라며 "이 우주의 대의왕이신 부처님을 롤 모델로 해서 긍정에너지를 키우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서 멋있는 인생을 설계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도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도 수행생활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이 한 생각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씨앗이다"며 "이번 체험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발심한다면 그 발심의 씨앗이 자라는 보리나무는 여러분을 부처님의 무한한 대자유와 이 우주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부처님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11명의 참가자들은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저희 출가학교 행자들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거울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성스러운 승가에 귀의하고,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며 이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출가학교 행자들은 얻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에 귀의하였으니, 하심하고 인욕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도반으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며, 출가행자의 성스러운 이 길을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여성 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도량 내에서 정숙과 질서를 지킬 것 △공양은 남기지 말고 포행 등의 시간에는 조용히 행동할 것 △다른 이의 교육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 출가생활에서 지켜야 할 '청규'를 시달했고,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연 스님에게 장군죽비를 내렸다. 고불식 이후 참가자들은 사찰안내를 통해 사찰의 역사와 의미를 공부했고 석좌교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본격적인 출가생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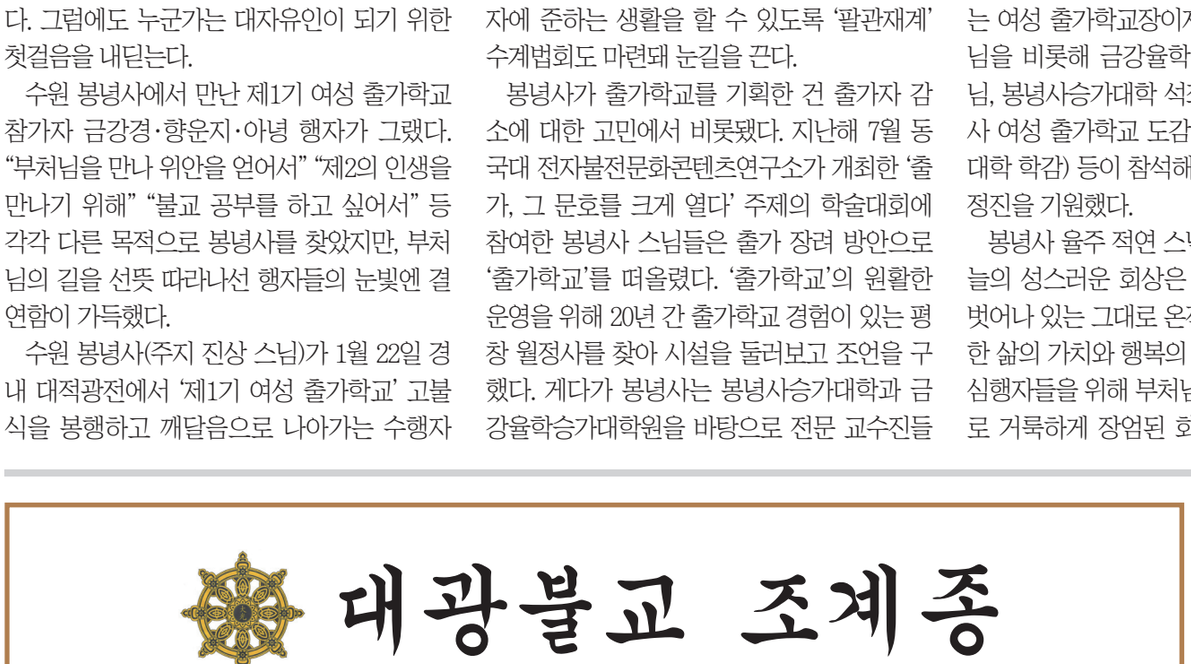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출가학교가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밑바탕이 되길 기대했다. 진상 스님은 "봉녕사에는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이 있어 (출가학교 참가자들이) 현시대에 필요한 계율과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익혀 전하는 실력자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출가학교 참가자들 가운데 출가를 원하는 분들도 꽤 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 수행으로 실제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주변에도 출가를 권유할 수 있도록 출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감 도연 스님도 "출가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출가학교에서의 좋은 경험을 통해 출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용기 내길 바란다"며 "꼭 출가가 아니더라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불법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봉녕사는 올해 여름 '제2기 여성 출가학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여성 출가학교를 열 계획이다.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약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법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혼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회장 금강심(금강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극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매(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5592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 운영 이사장 심산스님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이소정
편집위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집기자 최인숙
사무국장 채경자
사무차장 이장옥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